



# KWC 2020

## 국가별 와인 출품 경향

KWC 2020에는 16개국에서 650종의 와인이 출품됐다. 지난해에 비하면 다소 감소한 수치지만, 코로나19 시국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참여 국가를 출품 수대로 나열하면, 이탈리아, 칠레, 프랑스, 미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호주, 포르투갈, 뉴질랜드, 루마니아, 캐나다, 그리스, 남아공, 독일, 몰도바, 슬로베니아 순이다. KWC 2020에 출품한 와인들의 면면을 살펴본다. 글 강은영



NO.	국가	출품수
1	★ Italy ★	116
2	Chile	107
3	France	86
4	USA	83
5	Spain	79
6	Argentina	61
7	Australia	49
8	Portugal	31
9	New Zealand	15
10	Romania	7
11	Canada	4
12	Greece	4
13	South Africa	4
14	Germany	2
15	Moldova	1
16	Slovenia	1
	<b>Total</b>	<b>650</b>

### 이탈리아 와인 강제 지속

올해 KWC에 가장 많은 와인을 출품한 국가는 이탈리아였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지난 16년간 이탈리아는 KWC 출품율로 Top 3에 드는 주요 국가였지만, 특히 근래 들어 강세가 두드러졌다. 국내 수입사들도 이탈리아 여러 산지의 와인들을 들여오고 있어, 한국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이탈리아 와인의 스펙트럼이 한 층 넓어졌다는 사실도 고무적이다. 출품된 이탈리아 와인들을 카테고리별로 보면 역시 레드 와인의 비중이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화이트 와인도 많이 볼 수 있었다. 또 로제와 스파클링 와인 등 다양한 이탈리아 와인들이 KWC에서 선을 보였다. 토착품종으로 빚은 와인들이 많았다는 사실도 이탈리아 와인 카테고리를 더욱 흥미롭게 했다. 몇몇 품종들을 열거하면 삐꼬리노, 팔랑기나, 그레코, 파세리나, 라크리마, 알리아니코, 네로 다볼라 등이 있다. 반면 산지오베제나 몬테풀치아노에 보르도 레드 품종을 블렌드한 스타일의 와인도 많이 눈에 띄었다.

### 칠레와 프랑스

칠레와 프랑스는 KWC에 꾸준히 참여하는 주요 두 국가다. 올해도 출품수로 나란히 2, 3위를 차지했다. 칠레에서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큰 그룹의 생산자들이 대거 와인을 출품했다. 역시나 레드 와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흥미로운 것은 올해 KWC 스파클링 트로피를 차지한 것이

칠레 와인이라는 사실이다. 또 칠레 전통주인 피스코의 배럴에서 숙성시킨 흥미로운 와인이 베스트 칠레 레드 트로피를 수상했다. 매해 KWC에 출품되는 칠레 레드 와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만큼 칠레 레드 와인의 경향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데, 올해도 “칠레 와인의 퀄리티가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프랑스는 늘 기본기 탄탄한 와인들로 KWC의 수준을 높여준다. 세부 지역별로 보면 보르도의 참여가 높았다. 그 외 남프랑스, 샹파뉴, 론, 남서부 지역에서 와인이 출품됐고, 레드, 화이트, 로제, 스파클링 와인까지 다양한 와인들이 볼 수 있었다.

### 아르헨티나의 저력

올해 KWC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와인생산국이라면 아르헨티나를 빼놓을 수 없다. 아르헨티나 와인은 국내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아르헨티나 생산자들도 한국을 주요 시장으로 여기고 적극적인 공세를 펼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출품 수는 조금 많아졌고, 국가별 순위는 지난해와 동일한 6위다. 중요한 것은 출품 와인의 퀄리티다. 최근 몇 년간 KWC에 출품한 아르헨티나 와인들은 많은 호평을 받았지만, 올해 심사 때는 특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결국 아르헨티나 와인이 KWC 최고의 영예인 레드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2012년 당시 기준 트로피에 해당했던 베스트 레드에 트라피체가 거명된 이후, 아르헨티나 와

인의 트로피 수상은 처음이다. 트로피 부문에서도 레드 트로피는 출품 와인 수가 압도적인 만큼 가장 치열한 경합을 거치게 된다. 레드 트로피의 후보였던 베스트 컨트리 레드 와인 10종이 모두 경쟁했고, 그 중 강력한 우승후보로 거론된 다른 몇몇 와인들을 제치고 최종 트로피를 수상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 그 외 주요 국가 출품 경향

올해 참여가 돋보였던 또 다른 국가는 미국이다. 지난해 49종을 출품해 7위에 랭크됐던 미국은 올해는 83종으로 4위로 경총 뛰었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 주의 여러 세부 지역에서 와인들이 출품됐다. 확실히 까베르네 소비뇽을 베이스로 한 블렌딩 와인의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그 외에도 흥미로운 레드 블렌드들이 많이 보였다. 또 피노 누아 와인도 많이 출품됐다. 스페인 와인은 여전히 뽀빠라니요의 비중이 높지만, 올해는 모나스트렐 100% 와인도 많이 볼 수 있었다. 각각 베르데호, 아이렌, 소비뇽 블랑 100%로 빚은 와인들과 여러 품종을 블렌딩한 와인 등 화이트 와인도 다채로웠다. 지난 몇 년간 포르투갈의 스틸 와인들은 KWC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으며 ‘새로 발굴한 보석’ 같은 와인들로 여겨졌다. 포르투갈 와인에 대한 호평은 여전히지만, 다소 달라진 분위기가 있었다. “아직 많은 와인들이 수입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 포르투갈 와인이 국내 시장에 조금 정착한 것 같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생각이었다.

2018년에는 출품 수 1위를 기록했던 호주는 올해 다소 주춤한 성적을 보였다. 그럼에도 의미 있는 소식 중 하나는 지난 몇 년간 KWC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웨이크필드 테일러스(Wakefield Taylors)가 올해 베스트 호주 레드 트로피를 수상했다는 것. 현재 국내 수입이 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한국 시장에서 만나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스는 KWC를 통해 국내 시장에 독특한 자국의 와인들을 알려온 대표적인 나라다. 많은 와인들이 출품되지는 않았지만, 포터파이드와 스위트 부문에서 트로피를 수상하며 저력을 과시했다. 뉴질랜드, 남아공, 독일은 고유의 캐릭터를 잘 담은 와인들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KWC 2020에는 기존의 주력 생산국들이 참여는 비슷하게 유지된 반면 예년에 비해 아직 국내 시장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산지들의 와인 출품은 다소 감소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중에 루마니아, 캐나다, 세르비아, 몰도바 등의 와인들은 KWC 2020을 한층 다채롭게 빛내주었다. ☺